

## 펫카페·수영장…의성군 ‘펫월드’엔 다 있네!

국내 첫 반려동물 놀이공원 개장  
교육·스포츠 등 프로그램도 다양  
임실군, 반려동물센터 조성 계획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나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등 경쟁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강원 춘천시는 반려동물 산업을 본격화하는 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육성, 연결 플랫폼 구축,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억 원을 들여 710.53㎡ 규모에 관리동과 보호동 2동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 눈길을 끌었다. 춘천시는 동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산업이 효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의성군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펫월드’를 6월 개장했다. 의성군 단독면 안계길 일원에 조성된 펫월드는 4만 여㎡(1만2200평) 부지에 건축면적 1629㎡(4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24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됐다.

의성 펫월드에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총망라했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와 수영



경북 의성군에 조성된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놀이공원 펫월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나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경상북도청

장, 캠퍼장, 야외쉼터, 펫카페,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환영한다.

반려동물 문제행동 교정 교육과 보호자 교육, 문화교실,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의성 펫월드는 유료로 운영되며 안전 문제로 인해 맹견은 입장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인구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반려동물 사업을 구상했고, 지난 3년간 심혈을

기울인 끝에 펫월드를 완성했다.

전북 임실군도 ‘반려동물 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임실군은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오수면의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 팔자가 상팔자여’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1억2000만 원을 투입,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지역주민은 펫 뷰티(미용), 반려동물 식품 관리자, 반려동물 장례 코디네이터

(장례지도사) 등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예산 80억 원으로 오수 의견 관광지 일대에 12만㎡ 규모의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짓는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반려동물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전국적인 반려동물의 메카로 주목받아 관광사업 등 기대수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 아이러브펫

스포츠동아 2020년 7월 9일 목요일 13



### 독일에는 ‘펫샵’이 없다고?

반려동물 매매 금지…보호 동물 90% 입양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입양’ 인식 가져야

한 연예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다. 해당 연예인의 반려동물은 품종이 개량된 고가의 견종이었다. 펫샵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 못 미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동물보호소에 맡겨진 반려동물 10만2593마리 중 47.3%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안락사와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다.

반려동물 매매가 쉬운데다 혈통과 생김새에 집착하는 문화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비율이 3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등록된 동물 분양업체는 4000곳에 달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 천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독일은 민간에서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한다. 민간 펫샵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용품만 판매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입양은 ‘동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티어하임’에서 전적으로 도맡고 있다. 티어하임에서는 동물 이 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 티어하임이 보호하는 반려동물의 90%가 가정으로 입양되기 때문이다.

입양절차도 까다롭다.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입양 의사를 전달한다. 보호소에서는 입양 가정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입양 가능 동물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의 엄격한 반려동물 정책을 따라서 반려동물 매매를 막고, 입양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동물을 존중하는 인간만이 인간을 존중한다’는 말처럼 동물권을 끌어올릴 때 인권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 반려견 수면시간 12~14시간을 지켜주세요

반려인과 수면시간·장소 분리 필요  
수면 장소는 어둡고 조용한 곳 적절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반려인은 ‘내 반려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개와 인간은 다르다’는 현실을 반려인이 받아들여야 한다.

반려인이 흔히 지나치는 문제 중 하나가 반려견의 수면시간이다. 성견의 경우에는 하루 12~14시간의 충분한 취침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려견도 반려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생활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기 일쑤다. 반려인이 12~14시간의 취침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아껴서 한 침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문제가 더 커진다. 한 침대에서 같이 지낼 경우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서적 안정감이 동반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뒤척거림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



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 침대 생활을 이어가다보면 반려견이 과도하게 반려인에게 집착해 분리불안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반려견의 수면 시간과 장소를 따로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을 유도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반려견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반려견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면 장소는 어둡고 조용한 곳이 적절하다. 잠들기 전 산책 등 적절한 운동을 통해 반려견의 수면을 돕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폭신한 침구나 반려견이 좋아하는 것들을 배치해 반려견의 심리를 안정 시켜주는 것도 좋다.

다만 잠자리에서 배변패드는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반려견은 잠자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박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세계교회 대혁신 총괄 전도사  
空空 柳昌燾 氏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총재 황호관 목사

썩을대로 썩어 죽은 시체, 좀비와 다름없는 세계 교회 대혁신  
모든교회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교회는 어떤 될 것인가?  
두손 놓고서 열려 걱정뿐이요 대책도 대안도 없는  
분석과 비판을 가 할뿐이다.  
자정능력은 고사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여 좀비취급을  
당하며 급기야 개독교로 전락해 버린 오늘의 교회를  
원상회복하고, 돈걱정 없이 목사가 먼저 대접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원 없이 베풀고, 원 없이 기부하는  
성경적 기부정착의 실현을 꿈꾸는 참 목회자들과  
단 한번의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유하려 합니다.

종교재단 총재 황호관 목사  
목회학박사/개혁신단 중경총회장

####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극!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비서실장 임순호 목사 010-5329-9097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교단 본부

●서울 김기성 목사 010-4688-3491/전주권 목사 010-4640-7729/한광영 목사 010-2018-0866/조근자 목사 010-2488-0691/신비전 목사 010-9220-4334  
●부산 김수용 목사 010-3639-4979 ●인천 윤병모 목사 010-5063-8831/박운식 목사 010-3227-0993/서동원 목사 010-3489-4190/김호중 목사 010-8488-2999  
●경남 김수용 목사 010-5809-3977 ●부천 김광수 목사 010-6265-0993 ●이천,여주 최정일 목사 010-2607-8191 ●경기북 박성근 목사 010-4705-6175  
●경기남 임순호 목사 010-5329-9097 ●군포,의왕 최시행 목사 010-2514-8128 ●경기광주 신동선 목사 010-4461-8292 ●양평 신동성 목사 010-6803-7717  
●정읍 한성일 목사 010-8669-3125 ●고양시 강석만 목사 010-4277-0691/고령는 목사 010-2391-3004  
●김포 김인나 목사 010-4242-2577/김재현 목사 010-7742-9175

투자 전허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팅빈교회 1만여개,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신 르네상스 프로젝트  
선착순 1111개 교회(성도 333명 구축지원),  
퇴임목사 수만명,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에  
무조건 선착순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선착순 혜택

●본부교회 1% (고수익 가치 중여) 1004명 성도모집 혜택  
●10개 교회 1% (고수익 가치 중여) 333명 “  
●100개 교회 1%(고수익 가치 중여) 333명 “  
●1,000개 교회 1%(고수익 가치 중여) 333명 “  
선착순 1111개 교회 333명 현금지원 (최소 월 300만원 이상)



하이,우분투(주)  
대표전화  
070-4414-1338